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김예니 | 사회진보연대, 편집부장

문제제기

지난 이라크 전쟁을 되돌아보자.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전쟁을 반대했다.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물론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같은 구호를 들고 나왔고 함께 전쟁을 반대하였다. 물론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는 저마다 약간 상이했다.

여성운동의 역사를 보면 여성들의 반전운동은 그 어느 누구보다 선도적인 문제제기와 헌신적인 투쟁을 세계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런 여성운동의 역사는 이번 이라크 전쟁에 대한 반대투쟁에서도 잘 드러났다. 많은 여성단체가 전쟁을 반대하고 반전투쟁에 동참했는데 그 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WAW)였다. 이 단체에서는 “여성과 소수자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제출했고 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반전운동에 나섰다. 이들의 주장은 모든 전쟁은 여성에 대한 전쟁이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소수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면 한편에서는 이라크 여성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면서 전쟁을 반대하는 동시에 후세인 정권에 대한 반대를 천명할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고, 전쟁이라는 동학 자체가 남성적인 것이며 이에 평화를 옹호하는 것 자체가 여성적인 가치라고 주장¹⁾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쟁점들은 몇몇 토론회 자리에서 논의되었을 뿐, 당시 반전운동 내에 어떤 흐름으로 가시화 되진 않았다.²⁾

이제 이라크 전쟁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전운의 그림자는 전세계로 확대되었고 그 한 가운데 한반도가 있다. 전쟁에 대한 반대와 국제적인 평화를 위한 새로운 운동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에 각 운동세력들은 어떻게 새로운 평화운동과 만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은 현재 전쟁에 대한 정세적인 분석과 함께 현대 전쟁의 고유한 동학에 대해 진단할 때만이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여성운동이 반전운동을 한다는 것, 즉 페미니즘적 시각에서 반전-평화운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혀야 한다.

반전운동 역사 안 여성운동

전쟁에 반대해온 여성운동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유주의 페미니즘(Liberal Feminism)내 평화운동의 조류로부터 그 시작을 찾을 수 있다.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평화운동은 어머니들의 운동이었고 아들의 징집에 반대하는 운동이었다. 하지만,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전쟁을 통해 공적 영역으로 여성의 진출이 확대된다는 차원에서 전쟁을 동의했다. 나아가 여성의 참전을 요구(예로 나이팅게일)하였고 결국 전쟁의 요구에 이데올로기적

1) 정세적 분석이 결여된 것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연장선상에서 여성의 몸은 전장이라는 주장이다.

2) 그나마 논쟁이 되었던 것은 윤금이씨 주검사진을 게재하는 것에 대한 반대운동이었다. 성매매 여성이었던 윤금이씨 사진을 선정성에 기대어 게재하고 윤금이씨를 민족의 순수한 처녀로 문갑시켜 전쟁과 군사적 폭력의 실상을 폭로하겠다는 선전방식은 부척 반여성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으로 부응하고 말았다.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남성인력이 군인으로 대체되어 전장으로 나가는 사이, 여성들은 대거 공장노동자로 포섭되었고 전쟁을 지원하는 후방이 되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남성들이 되돌아오면, 그 여성들이 다시 돌아가는 곳은 더 열악한 환경의 작업장이거나, 가정이었다.³⁾ 이에 맞선 것은 급진주의 페미니즘(Radical Feminism)이었는데, 이들의 논리적 근거는 여성에 대한 상을 ‘눈물 흘리는 어머니상’으로 한정하는 전략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급진주의 페미니즘 역시 페미니즘이 어떻게 전쟁에 반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도와주지 못했다. 결국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승리⁴⁾는 여성을 애국자로 호명하고 참전에 동의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평화’만을 주장하게 된다. 이는 전쟁 이후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는 사후적 지원사업, 자선사업 수준일 뿐, 실제 전쟁이라는 폭력이 낳은 비극에 페미니즘이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여준다.⁵⁾

이런 예는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하나의 쟁점으로 군대내 여성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과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예전에 비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를 미국에서는 무척 진보된 군대문화로 성차별을 극복하는 예로 호도⁶⁾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페미니즘 운동 안에서도 쟁점이 일고 있다. 전쟁 수행을 위한 군대자체에 대한 반대와 여성의 상을 좀 더 새롭게 만들면서 공적 영역으로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 긍정하는 입장이 갈라졌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복합적이다. 첫째로 눈물 흘리는 어머니상이나 보호받아야 하는 연약한 존재로서의 여성을 뛰어넘어 새로운 여성상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가⁷⁾. 그리고 둘째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스스로의 인권을 위해 싸우면서 전쟁에 반대하고 인류의 평화를 옹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론과 인식이 필요한가. 우선, 역사적인 사례로부터 그 교훈을 찾아보자.

반전평화운동의 역사에서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기여는 잘 알려져 있다. 일단 그 최초로 거슬러 올라가면 혁명기 여성운동이 있는데, 러시아 혁명 당시 전쟁에 참여하는 여성은 상당수에 달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사민당이 참전을 결정한 것과 다르게 러시아의 입장은 ‘제국주의 전쟁에서 내전으로!’였고 혁명을 위한 전쟁반대였기에 여성들은 백군에 맞서 싸웠고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 싸웠다. 이것을 젠더(gender)적 측면에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전쟁 자체에 대한 반대와 함께 반폭력의 관점(폭력을 제거하는 형태로서)에서 여성이 조직화되었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외에도 사회주의 페미니즘 내 평화회의주의자이자 아나코 생디칼리즘의 콜비츠는 비폭력 평화주의적인 관점을 가졌었다. 하지만 비폭력이라는 쟁점은 쉽게 도덕주의(Moralism)로 흘렀고 이는 또한 애국주의에 외양적으로 포섭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전사의 상과 전쟁에 대한 정세적인 분석과 입장을 중심으로 조직화되는 사례를 보여준다. 이 점이 현재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 할 것이다.

전쟁은 인격적인 정치적 주체로서 인간을 부정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3) 실제 베트남 전이 끝나고 여성인력이 대거 공장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해결한 것이 아메리카 핵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아메리카 핵가족의 신화는 단명하고 말았다.

4) 현실적으로 이들은 전쟁이 일어나자 참전에 동의하고 전쟁복구 사업을 중심으로 자선사업을 펼치며 대중들에게 어필한다.

5) 이후, 문화주의 페미니즘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을 계보로 평화를 모성의 가치, 여성적 가치로 규정하기에 이른다.

6) 하지만, 최근 군대내 성폭력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군대내 여성의 비율이 늘었다는 것이 그 자체로 성차별을 극복하고 평등한 문화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7) 이것이 공적 영역으로 진출되는 것만으로 보장되는가. 여성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공적 영역에 남아있는 것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호명과 전쟁의 희생자가 되는 여성과의 연대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권리 주장을 무력하게 만드는 극단적 폭력의 사례다.(Balibar, 2002) 전쟁에 맞서 폭력을 제거하는 투쟁에 나서는 것은 곧 변혁이다. 이것을 평화롭게 살 권리로 제기되는 순간 비폭력과 타협하게 된다. 전쟁에 있어 자신을 방어한다는 것은 국가 대 국가의 논리여서는 안된다. 반폭력의 관점에서 이는 대중의 정치로, 대중장악과 정치의 우위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순간, 대항폭력이라는 양날의 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유지해야하는 관점도 바로 이것이다. 논점은 '비폭력이나, 아니냐', '공적 영역으로의 여성진출이나, 여성적 가치냐'가 아니라 '변혁이나 아니냐'다.

새로운 전쟁의 양상에 맞서 여성운동의 전망을 밝혀야 한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말한다.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이라고. 맞는 말이다. 일상적으로도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심지어 가난하다. 스스로를 부양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여성이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극심한 폭력에 의해 희생될 것이 뻔하다.

하지만 이전과 다르게 전쟁의 양상은 변했다. 대표적인 예로 보스니아 내전을 보자. 보스니아 내전은 세르비아계 군인들에 의해 보스니아 여성들이 집단강간을 당했다는 전쟁범죄로 유명하다. 일명 '인종청소'인데, 이는 전쟁에 따른 수많은 부산물 중 하나가 아니라 작전의 하나로 이용되었다.

전쟁은 지금까지 수많은 범죄를 동반했는데 독일 나찌당이 장교들의 우등한 혈통을 보존한다는 명분으로 고급 콜걸을 동원했던 사례나 일본군처럼 인신매매나 식민지 여성에 대한 착취의 일환으로 조직된 정신대나, 미군처럼 클럽문화를 대동한 형태로 남성 군인의 성욕을 해결하는 성매매를 조직하면서 발생했고, 교전 중 적국의 여성에 대한 강간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문제는 그 수가 심각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강간이나 인종청소는 전쟁 당시의 부수적인 범죄형태가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작전이라는 것이다. 이는 이라크 전쟁에서도 드러나는데, 예전 전쟁과 다르게 전쟁 사상자 중 민간인 사상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는 현상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제 전쟁 자체에 대한 반대는 전쟁엘리트에 대한 반대와 동일한 말이 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것은 불가피하게 근대 민족국가를 특징지었던 '정당한 폭력의 조직적 독점'이 붕괴하게 된 상황이라고 지적할 수 있으며 세계화시대 조직화된 폭력으로서 '새로운 전쟁'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전쟁'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지적할 수 있는데, 우선 이전 전쟁에서 나타났던 전향적인 국가이익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과거에 대한 향수적 표상에 기반한 동일성의 정치가 재발명되고 있다는 것. 다음으로 새로운 전쟁은 정규전이라기보다는 게릴라전이나 진압 행동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 즉, 전쟁의 목적은 다른 동일성을 가진 모든 사람을 제거함으로써 인구를 통제하는 것, 정치적 심리적 경제적 위협뿐만 아니라 대량학살, 강제이주 등의 방법을 통해서 배제를 실행한다는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세계화된 전시경제'다. 양 차 세계전쟁이 총력전으로 특징지어진다면, 새로운 전쟁은 약탈, 암시장, 해외원조라는 분산된 전시경제에 의존한다. 따라서 인도주의적 개입은 원조 자체가 교전국의 소득원이 되거나 이들과의 협상을 주장함으로써 전쟁을 정당화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전쟁에 대한 인도주의적이거나 도덕적인 비판은 사실상 전쟁 유지에 기여하는 측면이 된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전쟁은 여성에 대한 폭력 즉, 성적 차이에 의한 적대와 인종적 차이에 대한 적대(재생산의 측면에서 여성의 고유함에 대한 공격)를 여성에게 집중하는 형

태가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의 이름으로 전쟁을 반대한다

전쟁의 새로운 성격은 여성이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정세적으로,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여성이 전쟁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변혁의 전망과 연동된다. 이는 비단 전쟁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를 뛰어넘어 여성을 투쟁의 적극적인 주체로 호명하는데 논리적인 근거로 작동할 수 있다. 그리고 전쟁이 남성적인 동학이라는 이유를 극복하고 여성전사의 계보를 되살리고 전쟁 당시 개조되는 상황에 놓이는 남성을 구원할 수 있다.(전쟁반대가 고유하게 여성만의 쟁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전쟁에 대한 새로운 투쟁이 필요하다. 그것이 반전운동이 되었든, 평화운동이 되었든 평화에 대한 권리개념을 뛰어넘어 대중정치로 조직화될 필요가 있다. 바로 페미니즘이 평화운동에 기여해왔고 앞으로 평화운동에 주목해야하는 것도 새로운 전쟁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하나의 주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세계화가 여성들에게 극심한 빈곤과 성적 착취를 가져다주는 상황에서 이로 인한 갈등의 군사적 해결책으로서의 '새로운 전쟁'은 통치가 아닌 절멸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인종청소와 같은 양상을 띠게 되는 것) 그리고 이는 여성들이 빈곤과 성적 착취에 대항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것은 여성운동의 과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